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과 가치 합리성

장 효 민(세명대)

한글 요약

연구자는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그리고 베버의 이론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귀 기울이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끄는 경제주체들이 자본주의가 내포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삶의 자세를 지녀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 대안의 강구에 있어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혁이 아닌 베버가 제안한 합리성 개념에 기초하여 자본에 대한 몰입으로 상실된 가치 판단 도구로서의 이성의 의미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편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 및 제도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위한 연대 행위가 요청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인간 소외, 가치 합리성, 에우다이모니아, 자아정체성, 사회적 연대

1. 서론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시대이다. 상품과 기업의 가치는 수치화되고 경제적 성취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지역에 따라 거주인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도 하고 부동산과 증시 시세에 희비가 갈리며 노동 없이 부를 축적하고자 자아실현보다는 재테크에 몰입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역시 경제적 성취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작금의 시대에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보편화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열풍에 이르기까지 경제 산업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전반에 있어 이윤과 자본 획득에 대한 과밀화된 관심은 인간성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에 집착한 삶의 폐해와 관련하여 경종을 울리고 삶의 의미에 관한 의미 있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형적 성장과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체제와 활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에 있어 자유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과 이로 인한 소외 문제와 관련한 담론을 일깨우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과, 자본주의 경제적 운동법칙이 내포하는 모순을 폭로하는 마르크스의 비판, 그리고 합리성에 관한 베버의 관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본주의 형성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경제 원리와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계급 갈등 및 인간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중요한 통찰을 검토한다.¹⁾ 3장에서는 소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전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4장에서는 베버의 합리성 개념 분석에 기초하여 상실된 인간 이성의 의미 회복과 가치 합리성의 중요성을 부각한 후, 5장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 판단의 준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대해 강조한다.

2. 자본주의와 인간 소외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는 교환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한 나라의 부는 ‘그 국가의 생산량과 무역량의 총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

1) 인간 소외 개념은 개인의 원초적 자유를 의미하는 사회계약론적 관점, 포이어바흐의 종교적 소외 이론, 정신분석학적으로 소외 문제를 다룬 에리히 프롬의 관점 등 훨씬 보편적인 것이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와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인간 소외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마르크스의 관점에 한정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에 무역흑자와 국부를 동일시하는 중상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익추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관리되는 시장과 필요한 부분에 국한된 최소한의 국가 개입에 의해 실현되는 사회경제 질서의 건설을 꿈꾸었다. 그 결과 자원들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증가된 부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고 심화된 빈부 격차와 노사 간 계급 분화로 인해 인간 소외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점차적으로 자본에 몰입하는 자본주의체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자본』 서문에서 자신이 연구해야 하는 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 양식에 상응하는 생산관계²⁾, 그리고 교환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 있는 상품에서부터 경쟁으로 인한 대립으로 인해 노동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빈곤에 이르고 비참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친다. 본 장에서는 자기애와 교환 그리고 분업과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 원리와 이에 맞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본주의의 배경으로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 원리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에서 비롯된 욕구표출이 자연스럽게 국부(國富)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인간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생명보존을 넘어 사회적 인정에 이르는 무한한 물질적 행복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부의 축적과 연관된 물질적 행복 추구 성향의 동기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자기애(self-love)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애는 상호주관적인 공감(inter-subjectives sympathy)을 전제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자신의 물질적 행복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단, 생산력 향상으로 획득된 잉여물은 타인과 교환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므로 자기애를 통한 사적 이익의 추구는 종국에 타인과 사회와의 결속을 통해서 실현된다(Skinner, 1992: 143). 인간에게는 이러한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정념-관대, 인간다

2)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란 노동과 자본이 존재하고 노동자는 그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경제적 생산이 행해지는 구조이다(김광수, 1988: 139).

움, 상냥함, 동정, 서로간의 우정과 존경 등의 모든 성정으로서 배가된 공감(redoubled sympathy)의 정념들-이 내재해 있어(김옥경, 2005: 72), 타인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개인적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결속을 통한 교환의 활성화는 곧 분업을 촉진시킨다.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에서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 부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과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각자를 특정한 직업에 전념하게 하고, 또 그 특정한 일에 대해 그가 지닌 모든 재능과 자질을 육성하고 완성하도록 만든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2장

특히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노동 생산력 개선과 그로 인한 국부 증진의 주된 동력이라 생각하였다. 분업의 결과 노동자들이 특정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노동 생산력(숙련도와 솜씨, 판단력)과 생산 기술이 향상되고, 노동을 단순화함으로써 기계를 발명할 수 있게 된다.³⁾ 이로써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여 자본축적과 함께 사회 전체의 부가 집적될 뿐만 아니라 최하층에 있는 계층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이 분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회보다 좋아지게 된다.⁴⁾ 이처럼 인간 본성의 근저에 존재하는 ‘자기애’와 타인과 ‘교환하고자 하는 성향’, 그리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확장된 ‘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이익’이 합쳐져 촉진된 자본축적의 필연적인 결과로 분업은 더욱 급속하게 확장되고 생산성은 더욱 급진적으로 향상된다.

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 가운데 소비하고 남는 잉여 물건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타인과 교환함으로써 서로가 상인이 되는데 이러한 상업사회가 제 기능하

3) 분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분업의 발전에 따라 일생을 단일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해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잃고, 매일 몇 가지 단순한 처리법에 익숙해져 지력이 쇠퇴되므로 중대하고 광범한 이해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활기를 잃고 기존 직업 이외의 활동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Smith, 1776: 302-303; 조현수, 1998: 662에서 재인용).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분업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순기능에 더 가치를 부여했다.

4) 애덤 스미스는 설사 분업의 결과 빈부의 격차가 과도해 지더라도 수 만 명의 벌거숭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주민과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국왕간의 빈부격차 보다는 검약한 농부와 유럽왕후들의 생활의 상대적 격차가 덜 심각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보았다(Smith, 1999: 117).

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방지하고 서로 간의 전문성이 더욱 고양되도록 하는 경쟁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 경쟁이란 수요의 증가로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경쟁자들보다 더욱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한 새로운 분업과 기술 향상을 유도하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의 부당한 추구를 억제하는 도구(김병연, 2007: 31)로 기능한다.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공공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유능한 입법가는 우선적으로 경쟁을 회복시켜야 하며 정부는 독과점구조에 개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이처럼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통해 재력이나 기타 힘을 가지고 반사회적으로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경제체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에 해당하는 사익추구(self-interest)는 경제적 탐욕(economic greed)으로 변질되어 독점 혹은 강제로 강탈로 이어진다면 사회악이 되나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획득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능력, 시장 확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과 능력, 시장 확보 역시 자본이 풍부할 경우 더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므로 정의의 실현 도구로서 경쟁의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인간 소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란 거대한 상품 집적이며 각각의 상품은 자본형태로 나타나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상품’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본-임노동 관계의 연구도 교환이라는 일반적 현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 역시 상품이다(Sweezy, 1970: 16-17). 상품이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교환을 위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상품에 지출된 인간 노동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높여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품 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측정받는 것인데 이처럼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정립하는 근원은 인간의 노동, 즉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사회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다(Marx & Engels, 1844).

마르크스는 기계나 원료는 이전의 가치를 지닐 뿐 가치를 변동시키지 못하므로 상품은 노동에 의해서만 가치 변동을 겪게 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은 이미 정해진 가격을 변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가치를 부가하는 것은 노동력이며 상품 값이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노동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와 그 사용자인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한 대가로 노동의 결과 만들어진 생산물이 고용자의 재산이 되도록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가 그들의 자본을 이전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성을 쌓은 노동자는 쉽게 직업을 바꿀 수 없어 실업(失業)하게 되므로 이를 우려한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단화함으로써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 된다. 그리고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 소수자의 자본 축적이 강화되며 자유경쟁은 독점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사회는 유산자와 무산자로 이분화 되며 종국에 노동자는 가장 비참한 상품으로 전락해 감으로써 자본이 인간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일정수준의 실업률과 노동자 간의 경쟁에 의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대가로 획득되는 고용주의 이윤(잉여가치)은 결국 착취의 결과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가치의 본체로 보는 그의 철학적 인간론에 기반을 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송현호, 1996: 10). 인간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구체적인 구상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관한 탐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에게 있어 인간 소외 현상은 단순한 고독 혹은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이윤 극대화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도 인간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적 탐욕과 과도한 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네 가지 양상으로 소외된다(Fromm, 1963: 99-103).

첫째, 생산물의 외화로 인한 인간 소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분업화된 업무에 고용됨으로 인해 스스로가 생산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물이 노동자의 활동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 노동 성과를 맛보는 기쁨을 직접 누리지 못함으로써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현실성의 박탈과 자신의 징벌로 돌리고,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기 것이 아닌 생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생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산활동이나 생산물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만다. 인간은 나 자신의 활동을 자기로 부터 소외하는 것처럼 소원한 타인에게 그 사람 것이 아닌 활동을 내주고 만다.

마르크스 『경제학·철학초고』 제1 초고 제4장

생산물이 외화됨으로써 노동을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 노동자는 사유재산에 더 집착하게 되나,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심지어 노동 산물과 교환하여 획득한 임금마저도 타인의 지배하에 돌려주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둘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이다. 노동 과정의 세밀한 분할로 분업화된 경제체제 속에 기능하는 노동자는 파편화되고 단순해진 노동으로 마치 기계의 부품 결합과 같이 돈을 버는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도구화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인간 본성이 고갈된다.

분업은 노동자를 더욱더 일면적이고 의존적인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인간 사이의 경쟁뿐 아니라 기계와의 경쟁까지도 초래한다. 노동자가 기계로 전락되기에 기계가 경쟁자로서 등장한다.

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초고』 제1 초고 제1장

마르크스는 분업의 순기능에 주목하기보다 건강이 피폐해지고 도덕성과 정체성도 불구로 만드는 단순한 기계적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꾸리고 그러한 일자리마저도 행운으로 여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갈파해 내었다. 이로써 노동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그 자체에서 본질적 만족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함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되어 본연의 의미는 퇴색된다.

셋째,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유(類)로서 갖는 정신적 능력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자본과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희생을 불살라야하며 그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시장가격, 자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자본가에 종속되고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속적인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 생명활동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노임의 상승은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에 종속된 상태로 일하는 것에 더 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하며 눈앞에서 위협적으로 집적되어 가는 자본에 휩쓸린 탐욕의 노예로 봉사하게 한다. 외화된 노동 산물과 소외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남겨진 것은 재화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육체뿐이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욕구 덩어리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화

됨으로써 인간이 이해타산의 노예가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질과 행복을 돌아보지 못한 채 품성적으로 더 타락해가는 가슴 아픈 현실에 통탄했다. “노동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본으로서 존재할 때에만 노동자로서 존재하고, 자본이 그에게 존재할 때에만 자본으로서 존재할 뿐이다(Marx, 1844: 80).”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한 수단이 아닌 보편적이면서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 자연과 사회에 총체적으로 관여할 때 의식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생명활동을 드러내며 자아에 충실한 참된 생산을 할 수 있다.

넷째, 동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자본가들의 독점욕과 분업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의 둔화적, 정신적 황폐현상⁵⁾은 공평한 상호경쟁체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조현수, 1998: 40), 이윤 획득이라는 경제적 탐욕(economic greed)만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채움으로써 인간은 더욱 소외된다. 경제활동과 이윤획득의 문제를 계급간의 대립 문제로 파악한 마르크스는 강자의 횡포로 인해 약자가 파멸에 이르게 됨을 주장하며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았다(Marx & Engels, 1844).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향유하는 타인과 부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은 종국에 다른 인간으로부터도 소외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소외는 유목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부터 이탈하여 단지 자본 획득이라는 외적 보상을 위해 수단화된 노동을 뜻한다(김성훈, 2011: 308). 둘째, 인간 소외는 공동체 속의 타인과 진정성 있게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외톨이가 된 삶을 의미한다. 셋째, 인간 소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실존적으로 삶에 몰입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삶을 사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질적 욕구가 다른 모든 가치와 삶의 요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여 물질이 인간 상위에 있게 되면 목적과 수단이 병리적 관계를 가져 부조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적 삶도 왜곡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의 인간 소외 문제는 극복되어야 할 당위성이 부여된다.

5)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비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조급하여 신중하고 냉철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

3.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방안 강구에 앞서 인간성 형성 방식에 대한 합당한 관점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와 베버의 과학적 탐구의 근본적 배경은 자본주의가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간 운명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질문에는 인간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일정한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Löwith, 2003: 11). 이에 3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해 베버의 이론을 토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물질의 범주에 포함하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노동으로써 물질적 삶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에 가담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인간의 정신은 사회의 산물이나 자연과 사회에 능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물질에 반응하는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며 의식은 혁명적 세계관을 내포하여 자연과 사회에 반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사유를 자연과 사회에 변증법적으로 결부시켰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과 환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면서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의 변증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모순 덩어리 사회 속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역량’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진보시키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능력 역시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김성훈, 2011: 3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 특징을 고수한 이유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 현상을 개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취를 거부하고 노동자를 배려하고 연대하려는 자본가는 필연적으로 경쟁적 여건에 의해 좌절되고 도태되어 자기 소외를 경험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사회구조의 개선 없이 소외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그는 인간들을 참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본의 노예로 몰고 간 자본주의 체제적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止揚)함으로써 소외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귀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x & Engels, 1844). 사유재산이 지양된 사회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재화의 생산이나 경제적 이득의 확대를 위한 수단적 활동이 아닌 공동체 연대 속에서 내가 하나의 사회적 존재라는 확고한 의식에 기초한 활동이 되므로, 소유욕에 종속된 채 스스로를 수단화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총체적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적 감각과 속성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며 타인과 관계하게 된

다. 이러한 결과로 자기 자신의 실현을 내적인 필연성으로 삼고 그 사회의 새로운 교류와 가치를 형성해 나아가는 타인과의 연대 행위를 필수한 것으로 만드는 풍부한 인간적 욕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인간 해방과 회복에 이르게 된다. 이에 그는 당시 심각했던 자본주의적 모순의 해결은 보다 근원적인 성격의 혁명에 의한 보편적인 인간적 해방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체제 전복을 꿈꾸며 사회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변혁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를 가진 프롤레타리아를 모든 사회 계급을 동시에 해방할 수 있는 주된 계급으로 보았다(김남희, 2002: 324-325).

극단적인 유물론의 단점을 다소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소외의 소멸과 그에 따른 인간적 조건을 위해 사적 소유의 철폐를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삼았다(Schaff, 1984: 142)’는 점에서 유물론의 특징적 조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냉철한 시각은 타당하지만 그가 제안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는 역사 전개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였다. 그의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는 생산력의 자기전개과정이다(윤원근, 1999: 180). 사회의 생산 관계가 형성되면 출현한 생산력이 증가하여 잉여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잉여 획득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것을 사유화하여 소유 계급과 비 소유계급이라는 계급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계급구조 위에서 사유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정부와 법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철학과 종교 등이 등장하게 된다. 그의 소외론은 자본-임노동 관계에서의 착취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하부구조인 경제 제도가 상부구조인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서양 역사에서는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역사를 종교적인 인과적 의의로 결부시켜 경제구조보다는 정신적 문제로 설명한 베버의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생산 관계가 형성되고 생존의 필연성으로 인해 생산력이 강화된 새로운 생산관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기존의 생산관계와 일으킨 모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관계가 고착화된다는 변증법 운동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아시아의 신분제 구조가 생산력, 즉 경제적인 측면과는 관련이 적은 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수단화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를 경제적 범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

함으로써 사적 소유의 철폐에 과도한 중심성을 부여하고 있다(손철성, 2004). 그는 ‘임금에 의존하는 계급이 없다면 개인들은 서로를 자유로운 인간들로 대면하게 되고 잉여가치의 생산도 없을 것(Marx, 1976: 1005)’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분제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둘째, 노동을 물질로 치부한 것도 노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단순화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관점에 기초해 경제 구조의 변혁만이 자본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 행위가 인간을 대상화하고 외부의 자율적 법칙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독립해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물화(Reification)로 묘사하며(Musto, 2010),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 증식의 도구인 노동력이 자본의 물질적 구성에 포함된 것으로, 즉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단순화되고 기계화된 노동은 노동 성격의 질적 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본질을 물질적인 것으로 한계지음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기본 활동이자 역사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노동과 노동의 주체인 인간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인간에게 노동은 ‘고도의 분석적, 전문적 활동이자 창조적, 정신적 활동’으로 자기표현의 대상이자 수단으로써 사회 변화에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사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생산력의 증감’에 기초한 계급투쟁으로 본 그의 전제와 일관되지 못한 견해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 운동을 통해 계급 투쟁에 의한 역사의 발전단계를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다섯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새롭게 증가된 생산력을 지닌 계급의 등장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기존의 생산 계급’이 생산력의 모순을 노출하게 되면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력을 가진 계급’이 생산 계급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역사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그런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생산력을 출현시키고 이로써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자리매김하는 질서를 형성하고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소자본가가 큰 자본가에 대립했다고 하면 대자본가는 소자본가를 완전히 짓누르고 만다 (Marx & Engels, 1844).”며 노동자와 자본가뿐만 아니라 대자본가와 소자본가의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내었는데, 이처럼 프롤레타리아는 소자본가에 이르더라도 대자본가의 수탈에 의해 중산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프롤레타리

아로 전락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들 계급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아 소외를 지양하기 위한 처방으로 계급을 넘어서는 인간 실존의 회복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차인석, 1991: 139).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은 새로운 생산관계의 형성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최상의 존재인 인간이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는 사회적 관계를 전도하는 것이 정언명령(定言命令)이라는 보편적 당위의 요청에 의한 해법에 해당한다(Marx, 1983: 385). 이처럼 세상을 예지계와 현상계로 분리하고 독자적인 실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 칸트의 이론을 인용한 것은 인간의 인식과 의지에 의해 현실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사회와 역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그가 전제 삼은 유물사관과 모순을 이룬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운명을 소외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은 의미심장하지만 해법의 기본적인 전제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매우 주관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역시 인간이 실천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의식의 주체이자 자기의식을 지닌 유적 존재로 역사 창조의 추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차인석, 1991: 138).

4. 상실된 인간 이성의 의미 회복과 ‘가치 합리성’에의 주목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호소력 있는 비판에 귀 기울이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다시 침착히 검토해야 한다. 인간 소외 현상의 원인은 첫째, 기계적인 노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분업 체제, 둘째, 노동자의 생산물을 생산자와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자본가에게 종속시키는 임금 계약, 셋째, 교환의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할 화폐가 궁극적 목표가 되는 물질지상주의와 이로 비롯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물질숭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정신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권력적인 문제로, 시장경제에 형성된 특정 형태의 지배로 생각하였다(Musto, 2010).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소수가 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더욱 지배하는 체제를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토대와 구조(사유재산과 노동분업)를 해체하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집단 지배 아래 두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이 완전한 의식 하에서 사회적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진정 자유로운 연합을 구성할 것을 이상

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과의 관계에서 내포하는 논리적 모순과 별개로 이러한 해법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 결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독재를 양산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자본주의 사회보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소득격차가 훨씬 크므로(안재욱 외, 2014: 116-117)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도화된 분업으로 사회적 기능이 상호 연관된 자본주의 체제는 악영향도 있으나 순기능도 있다. 베버가 간파하였듯 현대사회에서 분업으로 인한 전문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임금 계약은 파괴될 수 없는 예측의 집일지도 모른다(Weber, 1971: 332).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 보다는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냉철한 사고에 기초해 과도한 자본 중심적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소외 문제를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식적 측면에서 가치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적극적 정신작용이 요청된다.

합리화(Rationalisierung) 개념에 주목한 베버는 단면적인 접근과 분석을 거부하였다. 베버는 합리적·전문적 분업과 인간성의 분할이라는 모순을 인정하고 있으나, 바로 이 합리성과 전문성은 그에게 자유의 문제의 장(場)에 해당하며, 사유경제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대에 대해 의심하였다(Löwith, 2003: 137-9). 그리고 ‘분업 구조는 인간으로부터 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과 의지를 빼앗아가며 노동을 실존의 즐거운 향유가 아니라 고달픈 생계활동으로 만든다.’는 마르크스의 견해(윤원근, 2000: 179)를 반박하며 사회 구조가 개인의 실존을 억압할 위험이 있으나 세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분업화, 관료화, 합리적 계산(rational calculation) 현상이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존재 의미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합리화된 세계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에 대항하며 자신의 행위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책임감 있게 열정을 가지고 끊임 없이 극복하며 개별화된 역할 속에 그때그때 자신을 완전히 던질 때 개인은 예측의 틀을 파괴할 수는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소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소외 현상 극복에 대한 베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Löwith, 2003: 74-77).

베버에 의하면 근대 자본주의 정신, 더 나아가 근대문화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 한 가지는 천직 관념에 바탕을 둔 합리적 생활태도다(Weber, 2016: 195).⁶⁾ 그는 목적으로서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이나, 천직으로 간주되는 직업 노동의 결실이자 검소한 생활의 결과로 획득된 부는 구약성서에 기초하여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과 다르며 자본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가치를 분별하는 개인의 신념적 판단과 객관적인 지식의 추구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려 하였는데 상실된 인간 이성의 의미 회복과 관련하여 베버의 가치 합리성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베버에 의하면 인간만이 동기에 입각해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문화적(文化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 행위가 가치판단이다. 그는 『사회학 근본개념』에서 합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위도 다음의 4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1) 목적 합리적 행위, 외부 세계의 사물 및 다른 인간의 행동을 예상하고, 그 예상 결과를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사고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2) 가치 합리적 행위, 어떤 행동의 독자적인 절대적 가치—윤리적, 미적, 종교적, 기타—자체에 대한, 결과를 도외시한 의식적인 신앙에 의한 행위이다. (3) 감정적, 특히 정서적인 행위, 이는 직접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한 행위이다. (4) 전통적 행위, 몸에 익은 습관에 의한 행위이다....순수 가치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인간이란, 예상되는 결과를 무시하고 의무·체면·미·교양·신뢰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명령된 것의 의의를 믿기 때문에 행위하는 인간이다....목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 합리성은 언제나 비합리적이며, 특히 행위가 목표하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로 높아짐에 따라 점점 비합리적이

6) 베버는 근대의 필연적인 가치로 합리성에 주목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 지적 의미가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파악된다는 것인데 이것의 근본은 수치적 또는 논리적 명제들의 관계에 포함된 의미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생활에 있어서 엄밀한 계수(計數)적 예측을 바탕으로 자본과 결합된 인구 및 상업 수량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삼아 세계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개인적 자아의 현세적인 이익과 관련지어 판단하고 계획적이고 냉철하게 생활해가는 삶의 태도는 ‘실천적 합리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개혁과 신앙에 독특한 금욕적 성격을 부여하였다(Weber, 2016: 50). 그는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주의의 거대한 발전의 부분적 현상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근본 원동력은 자본의 양이나 출처가 아닌 자본주의 정신의 전개로 판단하였다.

된다.

『사회학 근본개념』 제2장 사회적 행위의 종류

베버는 자본주의를 사회적인 생산관계, 생산수단, 생산력이라고 하는 자립적인 힘으로 간주하여, 그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합리적 생활태도의 궤도를 따라 발전하였기에 인간 생활의 가장 운명적인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Löwith, 2003: 47). 이와 같은 합리화는 두 측면에서 개인의 지위를 고양시켰는데 베버는 이러한 각 개인의 존재론적 상승을 현대인의 ‘불가피한 운명’으로 보았다(윤원근, 1999: 174). 첫째, 각 개인이 스스로 궁극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결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합리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의 문제로 개인의 실존성을 드러내는 다양성의 질서를 긍정한다. 둘째, 합리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신비스런 주술이 아닌 과학적 지식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첫 번째는 삶의 본질과 목적을 분별하는 영역에 속하는 가치 합리성과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봉사하는 수단의 영역인 목적 합리성과 관계된 것이다.

가치 합리성과 관련된 목적설정은 자유롭지만 목적 합리성과 관련된 생을 이끌 궁극적 가치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속성이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수단에 의해 목적이 관철될 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경험적인 지표에 따른 계산적인 평가와 판단에 따른 행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행위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결과를 고려하는 목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보면 신념에 기초한 가치 합리성은 행위하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로 높아질 경우 비합리적이 된다. 그러나 한편 신념윤리(Gesinnungsethik)에 해당하는 가치 합리성을 부정하고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해당하는 목적 합리성이 지나치게 지배하게 되면, 목적 합리성 역시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인간은 자가당착에 빠져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베버는 한 가지 방향만을 지닌 사회적 행위는 매우 드물지만(Weber, 2016: 363), 현대 사회에서 도구적인 목적 합리성이 궁극적 목적인 가치 합리성을 밀어냄으로써 개인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치 판단이 결여된 채 목적 합리성에만 치중하게 되면 자본이 경제활동의 유일

한 목적이자, 인격과 능력의 탁월함까지도 증빙하는 매개가 된다.⁷⁾ 그러나 베버는 온전히 자기목적으로 추구된 돈벌이는 개인의 행복 및 이익에 대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고한다(Löwith, 2003: 60). 선, 자유, 행복과 같은 삶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이성이 교환 수단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 축소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자신의 궁극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릇 어떠한 합리화도 극단적으로 전개되면 비합리적으로 되는데 순전히 자본 획득을 위한 자본 획득 노력은 극단적인 목적 합리성의 추구 결과 비합리적인 삶의 태도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의 인간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상실된 이성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만이 소유한 고유한 능력은 현실 속에서 문제 삼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여 참된 가치를 판단해 내는 것에 있다. 이것은 인간에 관한 궁극적 이념 설정과도 관계있다. 인간을 현실적 여건에 ‘종속’적인 존재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을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자본주의가 내포하는 인간 소외 문제의 핵심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 가능하게 하는 합당한 ‘가치’를 분별하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것이 요청된다.

5.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가치 판단 준거 확립과 실천

가치 합리성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 내는 것이다. 삶의 지향으로 삼을 가치를 분별하는 것은 개인 몫이지만 연구자는 삶을 이끌어 줄 합당한 가치 판단 준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며 각각의 함의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7) 이러한 경우 화폐는 모든 대상을 소유가능하게 하는 전능성으로 인해 심지어 인간의 무능력조차도 개선시켜주어 설사 사악하고 불성실한 인간이어도 화폐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존경받게 되기도 하므로 화폐가 곧 외화된 인간 능력으로 모든 사회문명과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전능한 존재로서 통용되는 화폐는 결국 사물의 가치를 혼동시킴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모든 성질을 혼란시키고 엇바꾼다는 한계를 지닌다.

1) 삶의 최종 목적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므로 인간의 노력은 그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전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체 생애의 전반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진정한 행복을 뜻하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이며 모든 이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해용, 2003: 288). 그에 따르면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이것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성취하며 가장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이는 최고선이자 궁극적 선이기에 자족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며 모든 만물은 좋음과 탁월성을 그 기능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역시 고유한 기능(ergon)을 확인함으로써 행복의 구체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좋은 혹은 뛰어난 하프 연주가가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듯 행복한 사람은 실천 이상의 원리에 따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좋은 덕(aretē)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정의를 비롯하여 용기, 절제 등의 인간의 탁월함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박해용, 2003: 100).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경제적 관계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모든 가능성에서 최고의 인간적 기능을 발휘하며 적절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 고유한 선에 이를 때 진정한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며, 덕에 기초하여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은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서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전재원, 2012).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돈을 버는 삶은 강제된 삶으로 부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유용하기에 그것 자체로 소중하며 추구되어야 할 좋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Aristotle, 1968).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믿음에 기초한 인간 고유의 이성적 능력에 바탕을 둔 도덕성 회복을 통한 물질만능주의의 극복이야말로 자본주의적 모순과 소외극복의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요청된다(윤영돈·최순옥, 2015: 157-164).

2)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노동의 참된 의미 회복

스스로가 상품화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맹목

적으로 휩쓸리지 않은 채 자신의 고유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폐 획득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고 그렇게 모은 화폐를 사용하는데 또 시간을 허비하여 삶이 그 가치를 다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자본 축적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살아온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정체성에 부합하게 역량을 펼쳐낸 삶의 만족도와 가치는 분명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맹자가 얻음에 있어 유익함이 있는 구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하여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⁸⁾ 자신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자 마음을 잃고서도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픈 일⁹⁾이라 하였듯 내 존재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본 축적을 위한 기계 혹은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보다는 이성적으로 자아를 끝없이 실현해가는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아정체성 정립과 관련하여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을 정교화 한 마르시아(Marcia)가 주목한 위기와 수행 개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자아정체성 모델에서 정체성 지위는 위기의 존재 여부와 수행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Marcia, 1966). ‘위기’는 청소년기에 여러 다양한 직업이나 신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심하는 의사결정 시기를 뜻하며 ‘수행’은 직업이나 신념에 있어서 개인적 추진이나 실행의 정도를 의미한다. <표 1>은 정체성 지위에 관해 요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Marcia, 1980). 정체성 성취는 의사 결정에 대한 고민을 거친 후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이념적 목적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르시아는 정체성 성취는 자기주도적이며 적응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체성 유실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 직업이나 이념을 수행함을 뜻하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이들은 위기의 시기를 겪지 않는다. 정체성 혼미는 의사 결정 고민 시기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이나 이념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나타낸다. 정체성 유예는 직업적 또는 이념적 쟁점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분업화된 체제 속에서 기계 속의 부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지배적 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구현해야 한다. 노동 분업의 세분화와 사회적 기능 연관의 고도화로 이룩

8) 『孟子』, 「盡心上」,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9) 『孟子』, 「告子上」,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되는 자본주의에서 발달된 교환법칙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간의 노동을 노동 시간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라는 일반 개념으로 환원한다. 이처럼 노동의 교환 가치에 따라 매개되는 사회적 관계는 자아정체성 구축을 위한 질적 계기가 사라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분업화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그는 도구적 의미 외에 어떠한 존재의 의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소외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지시와 구속의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관료적 조직 속에서 인간 상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주체적 인격으로서 자신의 삶을 관장하며 자아정체성 실현에 관한 개인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사회경제적 억압으로부터 도출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독립성에 기초한 개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정체성은 깊은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획득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개인은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했을 때, 더 큰 성취를 하고 더 긍정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Marcia, 1980: 181)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며 노동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유한 삶의 가치와 전문성의 방향을 담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처럼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가치와 직업적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거대한 산업의 부속품으로서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수치화되어 있고 이해득실이 분명하여 자본에 대한 관심이 마치 학문과 지성, 예술적 증진, 더욱이 본인의 자아 보다 훨씬 긴요하고 중요하고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며, 자신의 존엄성과 역할, 이성과 감성을 포함한 자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자본만을 쫓는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히 자아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로 그러한 삶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긍정성을 생산해야 하는 유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의 불안과 자본에의 집착으로 인한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 합리성에 기초한 강력한 자기 소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요청된다.

〈표 1〉 정체성 지위 분류

직업과 이념에 있어서의 지위	정체성 지위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실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예
위기(Crisis)	존재	결핍	존재 또는 결핍	위기에 있음
수행 (Commitment)	존재	존재	결핍	존재하지만 모호함

3)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실천을 위한 연대

상실된 삶의 의미의 온전한 회복은 이성이 삶을 이끄는 가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속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공동체적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개선과 더불어 삶의 가치관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구조는 사회경제적 체제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실질적 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차원으로 결집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대 사회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시민적이다(Löwith, 2003: 138).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는 자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의 문제와 자칫 구호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 간의 괴리의 축소이다. 사회 경제 구조적 측면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지양하고 변증법적으로 도출된 최상의 관계(relations) 구축을 통해 인간 소외의 해법을 제안했던 마르크스의 경고(Ollman, 2001: 52)와 관련하여 그의 경제 제도에 관한 접근법은 보류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간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유념해야 한다. (소외 문제를 개인의 주관적인 개체적 고립감으로 국한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유산자들의 경제적 자유만을 함축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 정의 실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가 공동체적 연대에 정치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가치 합리성에 대한 결단을 바탕으로 자본이 노동의 수탈을 통해 증대되고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따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인간의 근본적 활동은 타인과의 연대행위를 통해 그 사회의 새로운 교류와 가치를 산출하고 형성해 나아가는 사회적 생산 활동과 실천적 행위의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하며 이는 소유관계의 재편문제와 연관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박주원, 2001). 단, 소유관계의 재편이 사유재산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생활을 통한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없이 자본을 통해 사유재산을 증대하는 것에만 과밀화된 관심을 유발하는 사회 경제 제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소유욕’ 그 자체에 한정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공정성에 기초하여 직업적 역량을 전문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열정이 담긴 노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인정받는 경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인간은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노동 활동을 통해 고차원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영위할 수 있다. 노동의 성과가 정직하게 인정받는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로 이끌어갈 분배 기준을 타당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 교환을 위한 생산적 교류를 이어가며 책임감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 연대 행위가 요청된다.

6. 결론

에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부와 사치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인간이 산업과 생산에 매진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으로 부자가 된 이들은 실제 이 세상에서 진실로 중요한 사물들에서는 가난한 이들보다 더 유복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권기철·김규, 2002: 21). 마르크스 역시 자본에의 맹목적인 집착으로 소외된 인간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하고 재화의 축적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함을 설파하였다. 개인의 가치 판단에 대해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논하고 궁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형성한 것으로 윤리학은 좋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관점을 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해용, 2003: 296).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 절대적 진리와 절대가치가 해체되고 우리는 불안을 안고 생활해야 한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윤의 비중이 큰 업무에 더욱 몰입하는 현대인은 가치 합리성이 결여된 채 자본이라는 허울을 붙들고 자신의 유약함과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가치 아노미 현상 속에서 교환의 매개로서 다른 재화로써의 변경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마치 자본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 마냥 여긴다. 이처럼 자본이 삶의 제1가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마르크스는 ‘경제학은 스스로 설명해야 할 일을 전제로 만들어 버린다(Marx & Engels,

1844).’고 경고한다. 이성이 철저히 자본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의미만을 지닐 경우, 이는 타인과의 도구주의적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삶과 행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인간의 도덕적 이상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역시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발생시키는 화폐를 집적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장해준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폐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조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이성이 자본 획득 과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수단-목적 관계의 효율성만을 지향하며 인간 노동의 산물인 상품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라 칭하였다(Marx, 1976). 마르크스가 포착한 자본주의의 고질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상품은 상품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지위와 인격마저도 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병탁, 2013: 71). 상품에 불과해진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소유와 소비적 관계만 맺을 뿐이며, 사적 자산에 대한 집착은 모든 가치를 왜곡하여 경제적 가치들만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치부하며, 선한 양심이나 덕 등의 도덕적 가치는 도외시해 버린다(김남희, 2002: 328).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대면하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한다. 사람과 비슷하게 인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이 득세하게 될 4차 산업 혁명시대에도 맥락과 의미를 바탕으로 ‘가치’를 분별하는 이성의 기능은 인간의 고유한 역할로 기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그리고 베버의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인간 소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에의 집착으로 왜곡된 이성의 의미를 회복하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 줄 가치를 분별하는 가치 합리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합리성의 내용으로 연구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 이르는 참된 행복인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주체들이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본 축적보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결과인 사유재산의 본질적 의미를 담은 정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 가치와 제도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성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孟子』
2. 권기철, 김규,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의 정당화」, 『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2.
3. 김광수, 「기독교와 마르크스즘: 제4장 마르크스주의 경제론 비판」, 『한국기독교 연구논총』, 8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8.
4. 김남희,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인간소외」,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5권, 한국시민윤리학회, 2002.
5. 김병연, 「애덤 스미스가 본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 경제인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1권 제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7.
6. 김성훈, 「마르크스의 소외의 개념이 교육에 주는 함의」, 『인문과학논총』, 제28권,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7. 박주원,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 패러다임과 '정치'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8. 박해용,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 좋은 삶에 관한 철학적 단상」, 『사회와 철학』 제6권, 사회와철학연구회, 2003.
9. 손철성,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10. 송현호, 「애덤 스미스의 소위 노동가치론에 대한 재검토: 認知的 해석」, 『경제논집』, 제12권, 충남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6.
11. 안재옥 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 동녘, 과주, 2004.
12. 윤영돈, 최순옥(2015), 「노동과 소외 그리고 직업윤리」, 『도덕윤리과교육』, 제46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13. 윤원근, 「사회학, 질서의 문제 그리고 세계관(2)」, 『현상과 인식』 제23권 제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9.
14. 이병택, 『아도르노의 경험의 비판』, 북코리아, 성남, 2013.
15. 전재원, 「아리스토텔레스와 행복한 삶」, 『철학논총』 제68권, 새한철학회, 2012.
16. 조현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나타난 아담 스미드(Adam Smith)의 정치이론적 의미에 관한 소고」, 『국제정치논총』, 제38권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17. 차인석, 「사회인식과 가치- 베버와 마르크스」, 『철학사상』 제1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991.
18. Aristotle,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trans. by H. Rackham,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최명관(역), 『니코마코스윤리학』, 서울: 서광사, 1984.
19. Fromm, E.,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Frederick Ungar, 1963.

20. Löwith, K., *Max Weber and Karl Marx*,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이상률(역), 『베버와 마르크스』, 서울: 문예출판사, 2003.
21. Marcia, J. 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966.
22. _____, "Identity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1980.
23. Marx, K. & Engels, F., *Eränzungsband: Schriften, Manuskripte, Briefe bis*, Berlin: Dietz Verlag, 김문현(역), 『경제학·철학초고/자본론』, 서울: 동서문화사, 1844.
24. Marx, K., "Results of the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 in Marx. *Capital*, Vol 1, Penguin, 1976.
25. Marx, K., *Einleitung zu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Dietz Verlag, Berlin, 1983.
26. Musto, M., "Revisiting Marx's Concept of Alienation.", *Socialism & Democracy*, vol. 24, no. 3, 2010.
27. Ollman, B., *Alien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8. Schaff, A. *Marxism and the human individual*, Mcgraw-Hill, New York, 1970. 김영숙(역), 『마르크스주의와 개인』, 중원문화사, 1984.
29. Skinner, A. S., "Adam Smith: ethics and self-love". in *Adams Smith Reviewed*. edited by Jones, P. and Skinner, A. 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2.
30.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Penguin Classics, 1999.
31. Sweezy, P. M.,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0.
32.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Wissenschaft Als Beruf/ Soziologische Grundbegriffe*, 김현욱(역),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사회학 근본개념』, 동서문화사, 서울, 2016.

【Abstract】

A Study on Human Alienation in Capitalist Society and Value Rationality for its Overcoming

Jang, Hyo-Min(Semyung Univ.)

Even if capitalism succeeds in reducing poverty, it is still wrong on account of human alienation and its distortion of human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true introspection that examines how we incorporate implications for overcoming human alienation based on textual analysis. For this, the paper (1) describes Adam Smith's essential concepts in his economic theory, (2) attempts to give a better account of Marx's critique on capitalism with special focus on human alienation and dialectical materialism, and (3) discusses specific directions toward value rationality which Max Weber raised.

Human alienation is a very powerful term for catching the pathological aspects of modern capitalist societies. Alienation can be overcome by working as an expression of one's own human nature, not just to earn a living, and by restoring the truly human relationship in a just society. For this, I briefly suggest that the cognition of 'Value' Rationality in contributing to achieving eudaimonia, the ego-identity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social solidarity for a just society is needed.

Keywords: human alienation, value rationality, eudaimonia, ego-identity, social solidarity

- 이 논문은 2018년 02월 10일 접수되고
2018년 03월 26일 심사가 완료되어
2018년 03월 27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